

돌봄노동자의 특성과 근로조건*

황 덕 순**

I. 들어가는 글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돌봄노동자들의 기본적인 특성과 노동시장 구조에 대해서 살펴본다. 이로부터 돌봄노동시장과 관련해서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여러 가지 사실들(stylized facts)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접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조적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이 낮고, 근속이나 경력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Colombo et al., 2011)이 대표적이다. 본 연구가 선행연구들과 다른 점은 지역별 고용조사라는 대표본의 공식통계자료를 이용해서 좁게 정의된 의료복지서비스직과 가사·육아도우미라는 좁은 의미의 돌봄노동자들의 특징과 근로조건에 대해 살펴본다는 점이다. 돌봄노동의 실태를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거나(강혜규, 2010; 박현미·강은애, 2010; 장혜경 외, 2007), 패널조사자료 등을 이용하여 본 연구보다 넓은 범위의 돌봄노동자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윤자영 외, 2011).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II장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돌봄노동의 범위를 설명하고, 분석자료인 지역별 고용조사의 특징을 제시한다. 제III장에서는 지역별 고용조사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돌봄서비스 노동자들의 규모를 살펴보고, 어떤 산업에서 주로 일하며, 직업별로 성별 분포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본다. 제IV장에서는 돌봄노동자들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성에 초점을 맞추어 임금과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과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징과 관련되어 있는 연령, 경력, 근속 등이 직업별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간한 황덕순 외(2012), 『사회서비스 산업 노동시장 분석』의 제2장 가운데 일부를 재정리한 것이다.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hds@kli.re.kr).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제 V 장에서는 이 글의 주요 결과를 간단히 요약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것이다.

II. 돌봄노동의 범위와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 초점을 맞추는 것은 의료·복지서비스직(직업소분류, 421) 노동자와 가사·육아도우미(직업소분류, 951)로 분류된 노동자들이다. 다만, 돌봄서비스 노동자를 구성하는 상위직업군과의 노동력의 특성 및 비공식성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사회복지관련 전문직(직업소분류 247, 이하 사회복지전문직), 유치원교사(직업소분류 253)를 비교대상으로 같이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는 4개의 직업이 주로 분포하는 산업은 중분류 기준으로 사업지원서비스업(75산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84산업), 교육서비스업(85산업), 보건업(86산업), 사회복지서비스업(87산업), 기타개인서비스업(96산업), 가구내 고용활동(97산업, 이하 가사근로)이다. 위의 네 직업 종사자들은 위의 산업에 대부분 분포하고 있으며, 돌봄서비스 부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다른 산업에 종사하는 2~3%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구체적으로 각 직업에 속하는 세부적인 직종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사회복지전문직에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직업상담사 및 취업알선원, 상담전문가 및 청소년지도사, 시민단체활동가, 기타 사회복지관련 종사원이 포함된다. 253직업은 유치원교사로만 구성된다. 의료·복지서비스직에는 간병인, 산후조리원, 치료사 보조원, 의사 보조원, 복지시설 보조원, 그 외 의료·복지관련 서비스 종사원이 포함된다.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및 치료사, 간호조무사 등 일반적인 보건의료 종사자는 전문직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간병인을 비롯한 하위 돌봄서비스 종사자들이 의료·복지서비스직을 구성한다. 951직업은 가사·육아도우미만으로 구성된다. 위의 직업군 내에서도 시민단체활동가나 의사보조원 등과 같은 일부 직종은 본 연구의 대상인 돌봄서비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직업소분류 이상으로 세분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통계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는 불가피하다. 다만, 이들의 숫자가 전체 결과에 영향을 줄 정도로 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위의 네 직종은 보건의료 전문직과 초등학교 교사 이상의 교육관련 전문직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회복지서비스 종사자를 포괄한다. 이 가운데 사회복지전문직과 유치원교사가 상위직업군에 해당되고, 의료·복지서비스직과 가사·육아도우미가 하위직업군을 구성한

다. 특히 가사근로 종사자는 대부분 가사도우미 및 육아도우미에 포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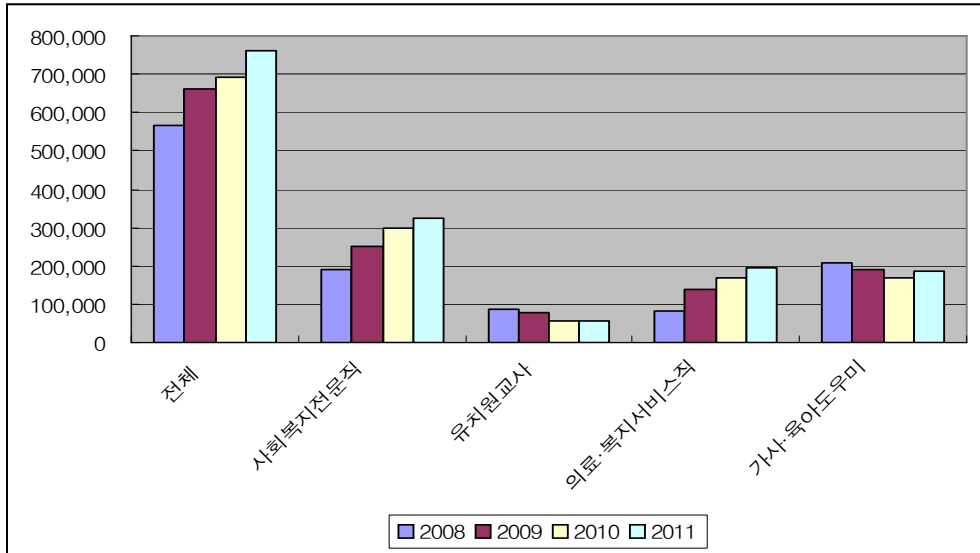
이 글에서는 산업과 직업소분류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지역별 고용조사를 이용한다. 지역별 고용조사의 경우 2008년에 시작되어 2010년까지는 매년 3분기에 연간 1회 조사로 시행되었으나 2010년 3분기 이후에는 분기별 조사로 바뀌어 수행되고 있다. 현재 약 17만 4천 가구를 표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 대표성을 갖는 최대규모의 고용관련 통계조사이다. 이 자료를 이용해서 최근의 비교적 정확한 돌봄노동자들의 고용추세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직업 및 산업 3자리 변수를 이용해서 해당 직업의 산업별 분포 및 종사상지위별 분포, 임금근로자의 노동시간 및 임금과 같은 근로조건을 파악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2008~2011년의 3분기 자료를 이용하여 최근 몇 년간의 고용규모를 살펴보고, 2010년 3분기 자료를 이용하여 돌봄노동자들의 인적특성과 근로조건을 살펴본다. 2011년 자료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조사기간에 추석이 포함되어 있어서 인적특성별 분포가 평소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Ⅲ. 돌봄서비스 취업자의 고용규모와 산업별·성별 분포

본 연구에서 다루는 돌봄서비스 직업의 고용규모는 2008년 3분기에 56만 7천 명에서 꾸준히 늘어나서 2011년 3분기에 76만 1천 명에 이른다. 전체 취업자 대비 비율은 2008년 2.5%에서 2011년에 3.2%로 늘어났다. 다만 직업별로는 추세에 차이가 있다. 사회복지관련직 종사자와 의료·복지서비스 종사자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반면, 유치원교사와 가사·육아도우미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다. 유치원교사의 경우 2010년 행정자료 기준 총수는 36,461명으로 지역별 고용조사의 숫자보다 상당히 적다. 따라서 유치원교사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통계의 정확성이 높아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가사·육아도우미의 경우 가사근로자를 포함하고 있는 전근대적인 직업으로서 점차 줄어드는 것이 고용구조 변화의 방향에 맞을 뿐만 아니라 일부는 공공사회복지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의료·복지서비스직으로 전환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사회복지전문직과 의료·복지서비스직을 중심으로 고용이 늘어나는 것이 현실의 추세를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돌봄서비스 취업자의 산업별 분포를 보면 직업별로 차이가 매우 크다. 사회복지전문직의 대다수는 사회복지서비스업(83.3%)에 취업하고 있으며, 6.2%가 사업지원서비스업, 5.8%가 교육서비스업에 종사한다. 이는 직업상담원이 일하는 취업알선업이 사업지원서비스업에 속한다는 점, 보육교사, 상담교사 등이 사회복지전문직으로 분류된다는 점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치원교사는 대부분 교육서비스업(97.8%)에서 일한다. 의료·

[그림 1] 사회복지서비스 직업 고용규모 추이(2008~2011년)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각 연도 3분기.

<표 1> 돌봄서비스 취업자의 산업별 분포(2010년 3분기)

(단위: 천 명, %)

	사업지원	공공행정	교육	보건	사회복지	기타개인	가사근로	전체
사회복지전문직	6.2	3.1	5.8	1.5	83.3	0.1	-	298 (100.0)
유치원교사	-	-	97.8	-	2.2	-	-	57 (100.0)
의료·복지서비스직	6.1	1.9	0.6	11.7	70.2	9.1	0.4	171 (100.0)
가사·육아도우미	6.7	1.7	1.4	0.1	7.1	2.0	81.0	167 (100.0)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2010년 3분기.

복지서비스직의 경우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가 70.2%를 차지하며, 11.7%가 보건업, 9.1%가 기타개인서비스업, 6.1%가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일한다. 기타개인서비스업에 간병업이 속해 있고, 인력파견이 사업지원서비스업에 속한다는 점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가사·육아도우미의 경우 가사근로 종사자가 81.0%를 차지한다. 이 외에 사회복지서비스업에 7.1%, 사업지원서비스업에 6.7%가 일한다. 가사근로 이외에도 가사·육아도우미가 취업한 것으로 조사된 이유는 보육시설이 사회복지서비스업에 속하고, 인력파견업이 사업지원서비스업에 속해 있다는 점 때문으로 보인다.

돌봄서비스 취업자의 종사상지위별 분포를 살펴보면 직업별로 돌봄서비스 취업자의 종사상지위에 커다란 차이가 있다. <표 2>는 직업별로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분포와 각 종사상지위별 여성의 고용비율을 보여준다.

〈표 2〉 돌봄서비스 취업자의 종사상지위별 분포와 여성 취업자 비율

(단위 : %)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분포				종사상지위별 여성 취업자 비율			
	사회복지전문직	유치원교사	의료복지서비스직	가사육아도우미	사회복지전문직	유치원교사	의료복지서비스직	가사육아도우미
상용근로자	69.5	88.5	38.5	4.1	86.6	99.0	92.5	99.7
임시근로자	16.7	10.1	46.0	34.3	93.3	100.0	94.4	99.0
일용근로자	0.2	-	13.0	27.1	96.3	-	91.7	98.7
고용주	11.0	0.9	0.8	0.6	79.0	90.5	48.7	97.4
자영자	2.1	0.4	1.7	33.4	38.3	100.0	93.8	97.9
무급가족종사자	0.5	-	0.2	0.6	82.3	-	100.0	80.2
전 체	100.0	100.0	100.0	100.0	85.9	99.1	93.0	98.5

자료 :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2010년 3분기.

상위직업에 속하는 사회복지전문직과 유치원교사는 상용직의 비중이 높은 반면, 하위 직업인 의료·복지서비스직과 가사·육아도우미의 경우 임시직·일용직의 비중이 높다.

상위직업군에 속하는 사회복지전문직은 유치원교사보다 고용주의 비중이 높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 직업종사자가 각종 사회복지 관련 기관의 시설장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유치원교사의 경우 다른 직업에 비해 상용직의 비중이 매우 높아서 88.5%에 이른다. 임시직이 10.1%를 차지하고, 일용직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용주나 자영자의 규모도 미미하다. 의료·복지서비스직의 경우 임시직의 비중이 46.0%로 가장 높아서 상용직보다 더 많다. 일용근로자도 13.0%로 가사·육아도우미 다음으로 많다. 가사·육아도우미의 경우 임시직과 자영자가 각각 1/3 이상을 차지하고 일용직이 27.1%로서 상용직이나 고용주의 비중은 매우 낮다. 이는 이들의 80% 이상이 가사근로자로 일하고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자영자로 분류되었기 때문이다.

돌봄서비스 일자리의 특징은 여성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표 2>에는 돌봄서비스 직업의 종사상지위별 여성 비중도 같이 정리되어 있다. 사회복지전문직의 전체 여성 비중은 85.9%로 비교대상 네 직종 가운데 가장 낮은 반면, 유치원교사의 경우 여성 비중이 99.1%로서 압도적 다수가 여성이다. 이 두 직업에서 여성의 비중은 종사상지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사회복지전문직에서 고용주의 경우 여성 비중이 79.0%, 자영자의 경우 38.3%에 불과하고, 유치원교사의 경우에도 고용주의 경우에는 남자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의료·복지서비스직의 여성 비율은 93.0%로 사회복지전문직 다음으로 남자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고용주의 경우에 다른 직업과 마찬가지로 남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가사·육아도우미의 경우 여자의 비중이 98.5%로 대다수가 여성이

며 규모가 미미한 무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종사상지위에서 여성의 비중이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난다.

IV. 여성 돌봄노동자의 인적특성과 근로조건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사회서비스 산업의 경우 여성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범위를 임금근로자로 좁힐 경우 이러한 특징은 더 강해진다. 지역별 고용조사의 경우 임금근로자에 대해서만 임금과 근로시간, 근속기간 등 고용특성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여성 임금노동자에 초점을 맞추어 노동력 구성의 특징과 근로조건에 대해서 살펴본다.

1. 연령 · 경력 · 근속기간

<표 3>은 돌봄노동자와 전체 여성노동자의 인적특성 및 근로조건 관련 지표들을 종사상지위별로 하나의 표로 정리한 것이다. 인적특성은 평균나이와 평균근속, 평균경력, 근로조건은 월평균임금과 시간당임금, 평소 주당근로시간과 주당 30시간 근로자 비중을 살펴보았다. 우선 인적특성을 먼저 살펴보자.

돌봄서비스에 종사하는 여성노동자의 직업별 평균연령을 보면 상위직업과 하위직업 사이에 매우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가사·육아도우미의 경우 평균연령이 53.2세에 이르며, 이어서 의료·복지서비스직이 50.1세로 두 직업의 평균연령이 50세 이상이다. 반면 상위직업인 사회복지전문직과 유치원교사의 경우 평균연령이 각각 34.6세와 29.7세로 매우 낮다.

직업별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회복지전문직의 경우 상용직보다 임시직과 일용직의 평균연령이 더 높다. 이는 이 분야에서 상용직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공식적인 채용절차를 거치는 반면, 임시직과 일용직은 그렇지 않음을 시사해 준다. 또 다른 상위직업군인 유치원교사의 경우 평균연령이 20대이다. 고용규모가 늘어나지 않고 있는 분야라는 점을 고려하면 학교 졸업, 혹은 자격 취득과 함께 청년기에 취업했다가 이후 결혼하거나 출산·육아 시기에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하위직업군에 속하는 의료·복지서비스직의 경우 중고령층이 대다수를 차지하며, 종사상지위별로는 다른 직업과 마찬가지로 상용직에 비해 임시직과 일용직의 평균연령이 더 높다. 가사·육아도우미의 경우 네 직업 가운데 가장 평균연령이 높다. 특히 임시직의

〈표 3〉 전체 여성근로자의 고용관련특성과 근로조건

(단위: 세, 년, 만 원, 원, 시간, %)

직업	종사장 지위	평균나이	평균근속	평균경력	월평균 임금	시간당 임금	평소 주당 근로시간	30시간 미만 비중
여성 전체	상용	36.5	5.3	6.6	180.7	9481.0	44.9	2.0
	임시	42.0	2.2	3.6	107.2	6663.9	41.1	19.5
	일용	46.9	1.7	4.3	70.4	5032.7	35.8	35.8
	전체	39.3	4.0	5.4	146.5	8140.8	42.8	10.9
사회복지 전문직	상용	34.0	3.2	4.8	136.3	7136.1	44.6	1.3
	임시	36.7	1.5	3.1	95.9	6538.4	37.7	20.9
	전체	34.6	2.9	4.5	127.7	7011.1	43.1	5.4
유치원 교사	상용	29.6	4.0	5.4	158.4	8305.9	45.9	0.9
	임시	30.6	1.3	2.8	119.4	7009.0	37.9	13.8
	전체	29.7	3.7	5.1	154.3	8179.6	45.1	2.2
의료·복지 서비스직	상용	48.6	2.3	2.9	104.7	5945.1	42.7	16.6
	임시	50.8	1.5	2.0	76.8	5421.4	35.3	41.7
	일용	51.9	0.9	2.1	75.9	5114.4	38.6	45.1
	전체	50.1	1.7	2.4	87.6	5586.9	38.6	32.3
가사·육아도우미	상용	45.7	2.4	2.8	111.3	7089.6	41.5	17.6
	임시	55.7	2.1	3.3	71.9	4632.5	38.4	29.3
	일용	51.2	2.3	4.6	77.4	6100.5	33.0	42.9
	전체	53.2	2.2	3.8	76.6	5395.3	36.4	34.2

주: 직업별로 해당 종사상지위의 고용규모가 0.5% 이내로 적은 경우는 제외하고 표시.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2010년 3분기.

경우 평균연령이 55.7세에 이르고, 일용직보다 평균연령이 더 높다.

하위직업의 평균연령이 상위직업보다 현저히 높은 것과는 반대로 하위직업에 종사한 경력기간과 근속기간은 상위직업보다 더 짧다. 여기에서 경력기간은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직장이동과 관계없이 이 직업에서 일한 기간은 총 얼마나 됩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측정된 것이다. 따라서 경력기간은 근속기간보다 길게 측정된다.

평균연령이 가장 낮은 유치원교사의 경우 평균경력과 근속기간이 가장 길고, 사회복지전문직이 그 다음을 차지한다. 하위직업 가운데는 가사·육아도우미가 의료·복지서비스직보다 평균경력 및 근속기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사회복지전문직이나 의료·복지서비스직의 고용이 다른 직업보다 최근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현상과도 관련되어 있다. 새로운 인력이 들어오면서 평균경력이나 평균근속이 고용규모에 큰 변화가 없는 다른 직업보다 짧게 나타나는 것이다.

의료·복지서비스직이나 가사·육아도우미의 연령과 경력, 근속기간을 비교해 보면 하위직업 종사자의 경우 오랫동안 이 직업에 종사했다기보다는 다른 일자리에 있거나 노

동시장에서 은퇴했다가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이 분야의 일자리가 중고령 여성에게 막다른 일자리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근속과 경력기간은 종사상지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 모든 직업에서 상용직의 근속기간이 다른 종사상지위의 근로자보다 길지만 경력은 일용직이 더 긴 경우도 있다. 특히 가사·육아도우미의 경우 일용직이 상용직이나 임시직보다 더 경력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의료·복지서비스직에서도 임시직보다 일용직의 경력기간이 더 길게 나타난다. 이는 유치원교사를 제외한 다른 돌봄사회서비스 직업 종사자 내부에서 일용직의 형식으로 장기간 종사하는 불안정한 고용층이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사회서비스 직업 내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경력이나 근속기간은 전체 근로자에 비해 짧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3>에 비교를 위해 제시한 전체 여성근로자의 평균연령 및 경력, 근속과 비교해 보면 경력과 근속은 모든 직업이 전체 여성보다 짧고 평균연령은 사회복지전문직과 유치원교사는 적은 반면, 의료·복지서비스직과 가사·육아도우미는 훨씬 높다.

2. 여성 돌봄노동자의 임금과 근로시간

돌봄서비스 노동자의 낮은 근로조건은 임금수준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표 3>에서 가장 임금수준이 높은 유치원교사의 월평균임금은 154만 원이고, 사회복지전문직의 월평균임금도 128만 원에 불과하다. 의료·복지서비스직의 월평균임금은 88만 원이고, 가사·육아도우미의 경우 77만 원이다. 전체 여성노동자의 월평균임금이 147만 원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본 연구에서 다루는 돌봄서비스 직업 가운데 상위직업군에 속하는 사회복지전문직도 여자노동자 전체 평균임금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는다.

월평균임금은 시간당 임금과 근로시간에 의해 결정된다. 시간당 임금을 살펴보면 월평균임금과 마찬가지로 유치원교사, 사회복지전문직, 의료·복지서비스직, 가사·육아도우미의 순으로 나타난다. 또한 시간당 임금이 높은 직업이 평소근로시간도 더 길다. 종사상지위별로 세분화해서 각 직업을 살펴보면 차이가 있지만, 돌봄노동자 전체를 큰 틀에서 보면 시간당 임금과 근로시간 모두 직업별 월수입의 차이를 초래하는 요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직업 내에서도 종사상지위별 상황을 보면 조금씩 다른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사회복지전문직과 유치원교사의 경우 상용직이 임시직보다 시간당 임금도 높고, 평소근로시간도 길게 나타난다. 의료·복지서비스직과 가사·육아도우미도 상용직이 임시직이나 일용직보다 시간당 임금도 높고, 평소근로시간도 길다는 점은 마찬가지다. 그러나 임시직과 일용직 사이에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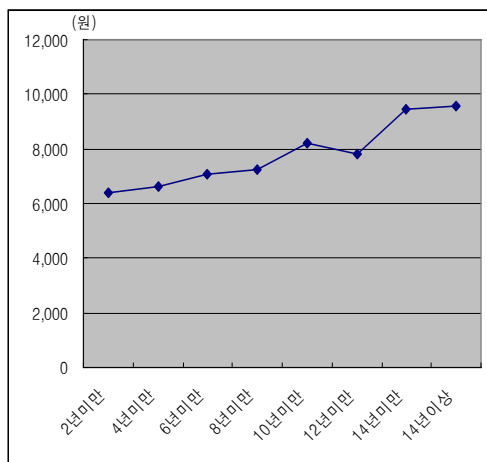
의료·복지서비스직의 경우 시간당 임금은 임시직이 일용직보다 높지만, 평소근로시간은 일용직이 임시직보다 길다. 결과적으로 의료·복지서비스직의 경우 임시직과 일용직 사이에는 월임금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사·육아도우미의 경우에는 다른 직업과 달리 일용직의 시간당 임금이 임시직보다 매우 높다는 특징을 보인다. 다만 임시직의 근로시간이 더 길어서 임시직과 일용직의 월임금 격차는 시간당 임금 격차보다는 줄어든다. 이는 가사·육아도우미의 경우 임시직과 일용직 노동시장에 매우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사·육아도우미의 경우 임시직은 최저임금과 유사한 수준의 임금으로 상대적으로 긴 시간 동안 일하는 반면, 일용직의 경우 임시직보다 시간당 임금이 약 15% 이상 높고, 더 짧은 시간을 일하면서 비슷한 수준의 월임금을 받고 있다고 요약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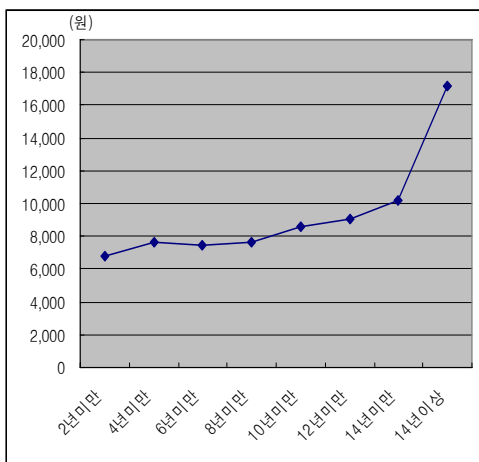
낮은 시간당 임금뿐만 아니라 짧은 근로시간이 돌봄서비스 산업 종사자의 낮은 소득을 초래하는 요인이라는 점은 이 산업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과제가 복잡적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산업별로 차이가 있지만 짧은 근로시간의 문제는 하위직업에 집중되어 있다. 30시간 미만 근로자의 비중이 사회복지전문직은 5.4%, 유치원교사의 경우 2.2%에 불과한 반면, 의료·복지서비스직은 32.3%, 가사·육아도우미의 경우 34.2%에 이른다. 임시직과 일용직의 비중이 높다는 점도 두 하위직업의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직업별로 편차는 있지만 상용직에 비해 임시직과 일용직에서 30시간 미만 근로자의 비중이 매우 높다. <표 3>에서 전체 여성노동자와 비교해 보더라도 의료·복지서비스직과 가사·육아도우미의 경우 평소근로시간이 현저히 짧고 30시간 미만 근로자의 비중이 매우 높다.

[그림 2] 돌봄서비스 노동자의 경력기간별 시간당 임금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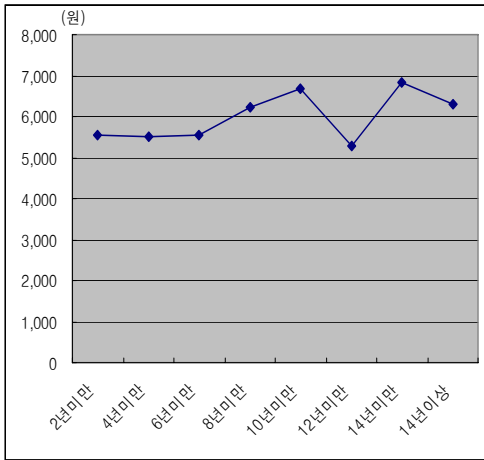
가. 사회복지전문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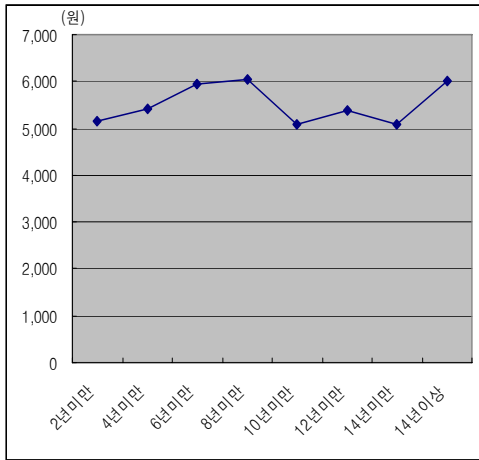
나. 유치원교사



다. 의료·복지서비스직



라. 유치원교사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2010년 3분기.

임금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경력이나 근속에 대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하위 돌봄서비스 직업의 임금이 낮은 요인 가운데 하나이다. [그림 2]는 직업별로 경력별 시간당 임금의 추이를 보여준다.

[그림 2]에서 사회복지전문직이나 유치원교사의 경우 경력기간이 길어질수록 시간당 임금이 높아지는 반면, 의료·복지서비스직은 6천 원, 가사·육아도우미는 5.5천 원 내외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의료·복지서비스직이나 가사·육아도우미 일자리가 전문적인 경험과 숙련을 필요로 하는 일자리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장기간 해당 직업에 종사하면서 숙련을 형성할 유인도 줄어들고, 저임금의 질 낮은 일자리로 유지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V. 맺음말

이 글의 주요한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돌봄취업자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본 연구에서 다루는 네 개의 돌봄직업 가운데 사회복지전문직과 의료·복지서비스직을 중심으로 고용이 늘어나고 있다. 산업 차원에서 보면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돌봄취업자의 고용 증가를 주도한다. 반면 전근대적인 고용형태인 가사근로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가사·육아도우미는 감소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사회서비스바우처 제도 도입 및 확대, 보육서비스 확대 등 공

적인 돌봄서비스의 확대가 돌봄노동자의 구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종사상지위를 보면 상위 돌봄직업인 사회복지전문직과 유치원교사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반면, 하위 돌봄직업인 의료·복지서비스직과 가사·육아도우미의 경우 고용이 불안정한 임시·일용직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가사·육아도우미의 경우 자영자로 분류된 가사도우미도 전체 고용의 1/3을 넘는 것으로 나타난다.

돌봄취업자의 대다수가 여성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여성 임금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시장구조를 반영하는 지표들인 연령, 경력, 근속실태와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살펴보았다. 유치원교사의 평균연령이 29.7세, 사회복지전문직의 평균연령이 34.6세인 데 반해 의료·복지서비스직과 가사·육아도우미의 평균연령은 50.1세와 53.2세로 격차가 매우 크다. 상위 직업과 하위 직업 사이에 격차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네 직업 모두 경력과 근속이 짧다.

가장 핵심적인 근로조건인 임금수준을 보면 시간당 임금과 월평균임금 모두 유치원교사, 사회복지전문직, 의료·복지서비스직, 가사·육아도우미의 순으로 나타난다. 이들 가운데 유치원교사를 제외하면 다른 세 직업의 임금수준은 전체 여성노동자들의 평균임금보다 낮다. 상대적으로 상위 직업에 속하는 사회복지전문직조차 여성들의 평균임금보다 낮은 점은 돌봄노동자들의 전반적인 임금수준이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근로시간도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길다. 특히 의료·복지서비스직과 가사·육아도우미의 경우 30시간 미만 근로자의 비중이 각각 32.3%와 34.2%에 이른다. 하위직업 돌봄노동자들의 낮은 소득수준은 낮은 시간당 임금뿐만 아니라 근로시간이 짧은 데서도 비롯되는 것이다.

또한 하위 돌봄직업인 의료·복지서비스직과 가사·육아도우미 모두 노동시장 경력에 대해 임금 측면에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두 직업의 경력과 근속이 매우 짧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임금수준도 낮고 경력과 근속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계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 노동시장에 진입했다가 실망하고 다시 나가는 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돌봄서비스 일자리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중요한 고용창출 영역이다(황덕순, 2011). 그러나 이미 우리나라는 저임금노동자 비율이 OECD국가 가운데 가장 높다(OECD, 2012). 이는 앞으로도 우리나라에서 일자리의 질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쉽지 않은 과제임을 시사해 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선적인 정책과제는 돌봄노동, 특히 의료·복지서비스직과 가사·육아도우미와 같은 하위 돌봄직업을 전문직업화(professionalization)하는 것이다. 전문직업화는 숙련자격 기준을 만들고 경력경로를 개발함으로써 더 나은 일자리로 발전시키는 것을 지향한다. 가사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관련하여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2010)은 전문직업화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전문직업화는 가사노동자들이 사무실이나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권리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다른 직업이 누리고 있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사용자 가정 사이의 이동시간까지를 포함한 적절한 보수, 주당 노동시간 설정, 유급휴가권, 건강 및 안전규정 준수, 적절한 수준의 연금, 모성보호, 유급질병휴가, 장애 발생 시 보상, 해고나 고용계약 종료에 대한 규정, 부당한 처우를 시정할 수 있는 수단과 직업훈련 및 경력개발에 대한 접근”, 나아가 “전문직업화는 그 일자리에서 경력이 형성될 수 있도록 전환하고, 여성일자리라고 하는 고정관념과 싸우는 것이다. 전문직업화가 얼마나 진전되었는가는 성별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측정될 수 있다.”

외국에서 이렇게 전문직업화가 중요한 화두로 등장한 데에는 돌봄노동자를 구하기 어렵고, 채용하더라도 이직이 빈번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우 아직 돌봄서비스가 충분히 확대되지 않았지만, 보육서비스의 경우 최근 빠르게 서비스 수요가 늘어나면서 보육교사를 구하기 어려운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고령화의 진전과 함께 돌봄서비스 수요도 그와 더불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전문직업화를 지향한 정책의 필요성은 빠르게 커질 것이다. 이와 같이 돌봄서비스 일자리를 저임금·저숙련 일자리에서 경력개발 과정을 포함한 나은 일자리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 평가의 전환 및 이에 기반한 보상체계의 개편,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공적인 재원부담의 확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더불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KLI**

<참고문헌>

- 강혜규(2010), 「사회복지서비스 부문 고용의 실태와 현안 과제」, 『보건복지포럼』 4월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6-21.
- 박현미·강은애(2010), 『사회서비스 분야의 노동실태조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 윤자영·김경희·최영미·김양지영(2011), 『돌봄 서비스 분야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장혜경·김영란·조현각·김고은·박경희(2007), 『공식영역의 돌봄노동 실태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황덕순(2011), 「고용률과 산업별 고용구조의 변화」, 황덕순 외, 『주요 국가의 경제성장과 고용성과 비교분석』, 한국노동연구원, pp.1~87.
- 황덕순 외(2012), 「한국 돌봄노동의 특징과 노동시장 구조」, 『사회서비스 산업 노동시장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Colombo, F., A. Llana-Nozal, J. Mercier, and P. Tjadens(2011), *Help Wanted: Providing and Paying for Long-term Care*, OECD.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2010), *The Professionalisation of Domestic Work*,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OECD(2012), *Employment Outlook 2012*, OECD.